

26년 06월 14일 연합예배 설교 정리

소망과 기도(본문: 로마서 8장 24~27절)

오늘날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어구: **우울/피로/절망** 등의 단어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으며 피로를 호소하거나 더 나아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음.

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통해 **이 시대의 풍조(우울/피로/절망 등의 단어가 시대적 특징으로 표현됨)에서 벗어나 소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**하는 것이 요구됨.

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(베드로전서 3장 15절)는 말씀 **소망으로 구원을 얻음**(로마서 8장 24절 오늘 본문): 소망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치유를 얻으며 온 세계도 소망이라는 열쇠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됨.

보이지 않는 소망을 **참음(인내)으로 기다리는 모습**(로마서 8장 25절)

기도할 때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으나 우리는 기도를 **하지 못함**(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의 어려움 기초)+**알지 못함**(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함)→이에 대해 **성령 하나님에게 기도를 내어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(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한 겸손한 고백을 기초로 성령님에게 의지하는 자세가 요구됨)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심**(로마서 8장 26절)

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상황(로마서 8장 27절)→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간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**하나님과 성령님 간의 대화에 참여하는 태도로 그분께 내어맡기는 자세를 가지는 것임.**